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11월 2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26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1. 25.(수)	담당부서	총괄기획과
담당과장	정석진 과장(044-203-4120)	담 당 자	신홍섭 사무관(044-203-4122)

개방과 협력의 글로벌 통상 리더십을 세우자

-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 개최 -

-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주도하기 위한 통상정책과 국내대책 추진 강조 -

□ **정부와 각계 민간전문가**가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등 **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**로 인한 **어려움을 극복**하고 **자유무역주의 확산을 주도**하기 위한 **통상정책과 국내대책 추진방안**을 논의하였다.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**은 11.26일(목)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 및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**제31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**하였다.

○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엄중한 **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**과 함께 **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,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강화 전략**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였으며,

○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,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.

< 제31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요 >

◆ **일시/장소** : '20.11.26(목) 14:30~16:00/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

◆ **참 석 자** : 공동위원장 포함 정부·민간위원 30여명 (비대면 참석자 포함)
- (정부) 성윤모 장관, 기재부·복지부·관세청 등 13개 부처 정부위원
- (민간) 조석(민간위원장), 경제·사회단체 대표, 학계 전문가 등 17명

◆ **논의안건** : ①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안(관계부처 합동), ② FTA 활용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(관계부처 합동), ③ FTA 성과분석 역량 강화 방안(산업부), ④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新통상전략 제언(대외경제정책연구원)

□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“**미국 대선 이후 대외 여건**이 불확실한 가운데, 앞으로도 **글로벌 공급망 재편, 디지털 전환 확산**과 같은 통상 환경 변화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“면서,

○ “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움츠리기 보다는 **개방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**해 나갈 계획”임을 강조하였다.

□ 성 장관은 “특히, 이와 같은 관점에서 **지난 11.15일 서명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CEP)**이 **역내 수출 활성화**와 **신남방 정책 가속화** 그리고 **교역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**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”한다며,

○ “**일본과의 FTA체결**에 따른 불안감과 **역내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** 등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나, **민감 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**하였으며 그간 **일본 수출규제 사례**에서 보여줬듯이 **우리의 산업 경쟁력**을 바탕으로 **충분히 경쟁**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.”고 언급하고,

○ “**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**에 대해서는 **내년 상반기중** 농수산업을 포함한 **산업별 영향평가**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**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**할 계획”임을 밝혔다.

○ 이와 함께, “앞으로 정부는 **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**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**「개방적 자유무역주의」를 확산**시키는데 **주도적인 역할**을 해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는 **통상위기 극복**을 위한 **제도개선**과 **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**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.

①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도 **우리 중소·중견기업**들이 **일시적인 충격**을 견디고 **경쟁력을 회복**할 수 있도록 **제도적 안전망을 마련**한다.

- 이를 위해, FTA 피해로 한정된 현행 **「무역조정지원제도」**의 지원 범위를 **통상위기로 인해 피해**를 입은 **기업과 근로자**도 지원할 수 있도록 **확대**하고,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**경영안정과 고용유지 등을 지원**할 계획이다.

- 이는 **미국·EU** 등이 **무역피해의 범위**를 FTA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위기 등으로 **폭넓게 인정하여 지원**하고 있는 **해외 사례를 참고**하였으며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*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  *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 FTA조정법)

② RCEP 등 **지속적인 FTA 확대에 발맞춰**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, **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**한다.

- 전국의 **지역 FTA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**하고, 브렉시트에 맞춰 **영국 FTA지원센터를 신설('20.12)**하는 한편, **FTA 관련 기업애로**를 **통합 관리**해 **정부정책과 연계**하며 **현장애로를 신속 해소**한다.

- 특히, 현재 **어려운 중소중견기업**의 **경영사정 등**을 감안해 **FTA 컨설팅 핵심사업**(OK FTA사업)에 대해 **기업부담비율**을 **완화***하고, **영세기업**에 대한 **1:1 특화 컨설팅사업**도 **신설**한다.

  * 기업부담비율 면제 기준(전년도매출액, 억원) : (기존) 20억 이하 → (개선) 50억 이하

③ 다양해지는 FTA 형태와 영향을 고려하여 **각 FTA 영향분석**을 **선제적·다각도로 실시**하고 이를 토대로 **보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**한다.

  * (기존) 계량분석 → (개선) 정성평가 도입 + 통상현안 분석 강화 + 민관 협의체 신설

□ 이를 바탕으로 정부·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**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를 점검**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**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제기**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.

□ 공동위원장인 조석 민간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“**RCEP 서명**을 비롯해 **새로운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**가 논의되고 있어 국내 보완 대책을 심의하는 **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역할**이 다시금 중요해진 상황”이라며,

○ “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가 향후 **발효될 FTA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**해 **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,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**하고 수출기업들의 **FTA활용을 극대화하는 구심점**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신홍섭 사무관(☎ 044-203-41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